

한일경제협회 NEWS

제42호

2020

★★★★★

CONTENTS

Ⅰ 2021년도 사업계획

- 03 2021년도 이사회 및 제40회 정기총회
- 04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 05 제27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06 제2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07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 08 제19회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2021

Ⅰ 2020년도 사업실적

- 11 도미타(富田) 신임 주한일본대사 환영회
- 12 2020년도 이사회 및 제39회 정기총회
- 13 주한일본대사 주최 만찬간담회
- 13 코로나19 일본 의료물자지원 증정식
- 15 일본 지자체·관계기관 간담회
- 15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2020
- 16 한일중 지역간 경제교류포럼2020
- 17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Ⅰ 신규회원사 소개 및 회원사 동정

Ⅰ 한일통계자료

Ⅰ 회원가입 안내 및 회원사 리스트

2 0 2 1

새해는 더 많이 행복하세요



다가오는 신축년, 올해보다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한일경제협회 사무국 일동



2021년도 이사회 및 제40회 정기총회 개최(안)

2021. 2. 23 SEOUL, KOREA

2021년도 이사회 개최(안)

일 시	2021. 2. 23(화) 10:30 ~ 11:20
장 소	대한민국 롯데호텔서울 36층 피콕스위트
의 안	제1호 의안 : 2020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제40회 정기총회 개최(안)의 건

제40회 정기총회 개최(안)

일 시	2021. 2. 23(화) 11:30 ~ 13:00
장 소	대한민국 롯데호텔서울 2층 에메랄드룸
의 안	제1호 의안 : 2020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 선임(안)의 건

※ 문의 : 서광현 과장(02-3014-9886)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안)

2021. 5. 11 ~ 12 SEOUL, KOREA

개최목적	• 한일 양국 간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교류 촉진에 관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 • 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통해 경제협력의 네트워크를 조성
개최기간	2021. 5. 11(화) ~ 12(수) ※ 5. 10(월) 일본측 단장단 한국 정부부처 예방
개최장소	대한민국 롯데호텔서울
주 제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규 모	한일 양국 경제계 대표 300여명
주 최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사)일한경제협회,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일정(안)	5월 11일(화) 14:30-16:00 개회인사, 내빈축사, 기조연설 16:15-17:10 특별강연, 협회활동 경과보고 18:00-19:30 리셉션(한일양국 경제협회 공동개최) 5월 12일(수) 09:00-13:10 제1세션, 공동성명(안) 심의 및 오찬회 13:20-16:20 제2세션, 폐회식 16:30-17:00 양국단장 공동기자회견

※ 상기 일정(안)은 코로나 19 조치에 따라서 화상회의 등으로 프로그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정호 부장(02-3014-9877) / 서광현 과장(02-3014-9886) ☎

제27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안)

2021. 8월 중 TOCHIGI,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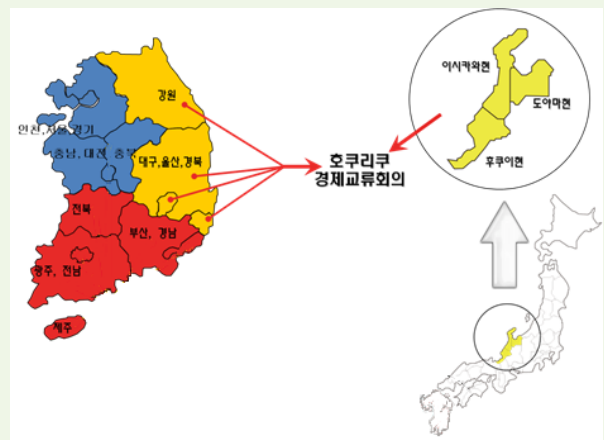
개최목적	• 현장중심 실물경제 교육을 통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열어 갈 경제발전의 주역인 청소년산업인재 양성 • 비즈니스 마인드의 향상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미래의 한일산업협력·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개최기간	2021. 8월 중 개최예정
개최장소	일본 도치기현(栃木県) 「나스고원 자연의 집(那須高原 自然の家)」
규 모	한일 양국 고등학생 80명(한일 각 40명)
주 최	(사)한일경제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후원·협력	후원 : 외무성(예정) / 협력 : 도치기현, (주)JTB
운 영	아이빛연구소(주)
테 마(안)	자연과의 공생
활동내용	한일 혼성 8개팀으로 구성, 4박 5일간 합숙하며 도치기현의 각종 산업시설과 현장에서 일본 경제현장 체험을 실시,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과의 공생'으로 이어지는 양국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사업 기획·발표
일정(안)	1일차 출국, 오리엔테이션, 팀구성원 친해지기, 사업안 토의 2일차 문화체험, 일본경제현장체험, 골든벨(퀴즈대회), 사업안 결정 3일차 사업발표회 준비, 사업발표회 준비 & 리허설 4일차 사업발표회, 표창식·수료식, 액션플랜 발표, 친구에게 한마디 5일차 일본문화체험, 귀국

※ 문의 : 이유경 대리(02-3014-9866) KJE

제2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안)

2021. 8월 중 GANGWONDO, KOREA

개최목적	한국의 동해안 4개 자치단체 「대구·울산·강원·경북」과 일본 호쿠리쿠 3현 「도야마(富山), 이시카와(石川), 후쿠이(福井)」지역과 경제협력방안을 논의
개최기간	2021. 8월 중 개최예정
개최장소	대한민국 강원도
규 모	약 100명
참가대상	한일 양국 정부, 자치단체, 경제단체 등
일정(안)	1일차 · 입국 2일차 · 제2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전체회의 · 한일 양국공동 주최 오찬교류회 · 세션1 & 세션2 · 개최지 주최 환영리셉션 3일차 · 산업시찰 I · 개최지 주최 오찬교류회 · 산업시찰 II 4일차 · 귀국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교류지역〉

※ 문의 : 이유경 대리(02-3014-9866) ☎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안)

2021. 9월 중 SEOUL, KOREA

개최목적	• 한일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 과제에 대한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로서, 「한일경제인 회의」를 통해 양국정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 제언 및 실현 • 한일경제인회의 의제 상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4개 미션 수행 1) 한일간의 무역확대 2) 한일간의 투자확대 3) 한일간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4) 한일산업경쟁력강화 프로젝트		
개최기간	2021. 9월 중 개최예정		
개최장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상세 개최장소 추후 안내		
위원구성	구분	한국측	일본측
	체어맨	오석송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주)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아소시멘트(주) 회장
	코디네이터	이수철 한일경제협회 상임이사 (주)GH홀딩스 회장	다카다 노부아키 NRI사회정보시스템(주) 前사장
	일반위원	한일 양국 기업, 경제단체 등 60~70여명	
공동주최	(사)한일경제협회, (사)한국무역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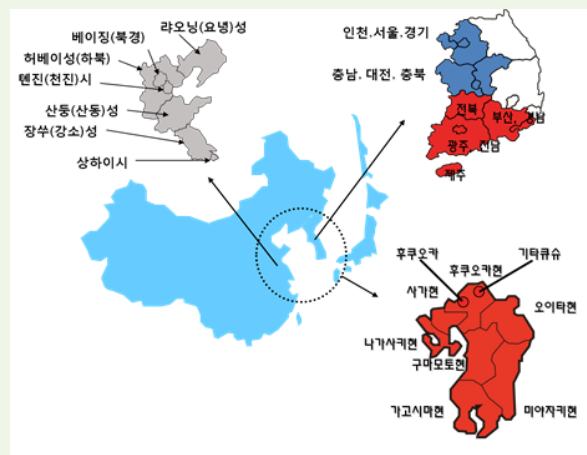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전경〉

※ 문의 : 김정호 부장(02-3014-9877) / 서광현 과장(02-3014-9886) KJE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안) 『한·일 (큐슈) 경제협력회의 2021』

※ 병행개최

개최목적	• 한중일 환황해권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3국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증진을 도모 • 동북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의 기반을 구축하고 3국 경제발전에 기여
개최기간	2021. 11. 15(월) ~ 17(수) ※ 본 회의(환황해 : 11. 16(화), 큐슈 : 11. 15(월))
개최장소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県)
규 모	약 200명
참가대상	한중일 3국 정부기관, 자치단체, 경제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일정(안)	11월 15일(월) • 산업시찰 I •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2021 본회의 • 대표단 만찬 • 3국 사전 실무자회의 11월 16일(화) •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 식품·관광전시회 • 3국 정부간 국장회의 •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 본회의 • 개최지 및 큐슈경제국제화 추진기구 주최 환영만찬회 11월 17일(수) • 산업시찰 II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교류지역〉

※ 문의 : 이유경 대리(02-3014-9866)

2021년도 (사)한일경제협회 주요 사업계획(안)

2020. 12. 현재

월	일 자	행 사 내 용	지 역
1~2		주한일본대사 환송회	서울
2	19(금)~21(일)	제15회 한일학생미래회의	서울-도쿄 화상회의
	23(화)	이사회(회장단 회의)	서울
		제40회 정기총회	서울
4		주한일본대사관-회장단 간담회(대사관)	서울
5	10(월)~12(수)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서울
6		회장단·주한일본대사관·SJC 친선교류활동	서울
		한·중(지닝) 산업협력상담회2021	서울
		2021 한일경제협회 회원사간담회 일본시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서울
8		제27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일본 도치기현(栃木県)
		제2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강원도
9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서울
10		회장단-주한일본대사관 간담회(협회)	서울
11	15(월)~17(수)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2021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県)
12	초순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일본 도쿄도(東京都)

2020년도 사업실적



도미타(冨田) 신임 주한일본대사 환영회

일자 장소 | 1월 20일(월) 웨스틴조선호텔

참가 규모 | 18명(협회 회장단 15명, 주한일본대사관 3명)

도미타(冨田) 신임 주한일본대사 환영회 개최결과

- 2019년 12월 부임한 도미타 코지(冨田 浩司)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환영회를 개최
- 김윤 회장은 대사님 재임 중에 그간의 어려움은 훌훌 털어내고 양국 관계를 튼튼한 토대에 올려주시리라 기대한다며, **상호간 보다 진솔한 소통과 의미깊은 교류를 소망**한다고 밝힘
- 도미타 대사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때라도 항상 Safety net은 있었고, **오랜기간 동안 축적해 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라며, 한일관계 강화를 위해 협조를 요청함



〈환영회 단체사진〉



〈인사말하는 김 윤 협회장〉



〈답사하는 도미타 주한일본대사〉



〈환영회 전경〉

2020년도 이사회 및 제39회 정기총회

일자 장소 | 2월 26일(화) 롯데호텔서울

참가 규모 | 74개사(위임 48개사 포함)



〈의안진행하는 김 윤 협회장〉



〈정기총회 전경〉

협회 [회장 : 김윤(金鎭)/(주)삼양홀딩스 회장]의 제39회 정기총회가 2월 26일(수) 오전11시30분 롯데호텔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이 협회 부회장으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사장이 협회 상임이사로 새로이 선임되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김윤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하여 류진 부회장(풍산그룹 회장), 신동빈 부회장(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부회장(효성그룹 회장), 문규영 부회장(아주그룹 회장), 손봉락 부회장(TCC스틸 회장), 조용병 부회장(신한금융 회장) 이경재 상임이사(삼진엘엔디 회장), 이상준 상임이사(화인대표이사), 서석승 부회장(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10명이 재선임되었다.



조원태 회장



이인용 사장



장동현 대표이사사장



우기홍 대표이사사장

김윤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협회만큼은 소통과 교류·협력의 최전선에 우뚝 서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불투명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의 관계 개선과 나아갈 방향성 모색과 함께 한일경제인회의, 지역간 경제교류회의, 한일청소년교류,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채택했다. 

주한일본대사 주최 만찬간담회

일자 장소 | 6월 18일(목) 주한일본대사관저(서울)

참가 규모 | 20명(협회 회장단 14명, 대사관·SJC측 6명)

우리협회 회장단과 주한일본대사관과의 정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만찬간담회가,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의 초청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도미타 대사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 극복에도 한일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경제 협회에서 마스크 5만장을 오사카와 규슈에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만나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하며, 한일은 특히 이웃나라 이니 서로 더욱 이해하고 소통해야 한다”라고 답사했다. 이 날 만찬간담회를 통해 한일관계가 어렵더라도 경제인들이 더욱 교류하고 돈독해져야 함을 다시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만찬간담회 전경〉

코로나19 일본 의료물자지원 증정식

일자 | 6월 24일(수)

장소 | (한) 삼양홀딩스 회의실

(일) 큐슈경제연합회 회의실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이웃나라 우호도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한일경제 협력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협회 차원에서 특별성금을 모금, 협회와 인연이 깊은 일본 오사카와 큐슈지역에 마스크를 5만장 구입하여 지원했다.

김윤 회장은 “한일관계 및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민간분야에서 마스크의 전달로서 표상되는 진정성이 상호이해를 높이고, 최대의 협력을 도모하는 상징이 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마스크를 증정했다. 



〈화상 증정식〉

일본 지자체·관계기관 간담회

일자 장소 | 8월 21일(금) 롯데호텔서울
참가 규모 | 24명(한국 10명, 일본 14명)

우리협회와 한일재단, 일본 자치단체 및 협력기관 간의 간담회가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협회에서 주최하는 지역 간 회의의 참석요청과 함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기술연수 협조요청 등이 진행되었다. 일본측에서는 젊은이들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일본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한국기업 방문기회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토대로 한일 지자체간 교류 촉진, 코로나 이후 항공편복원, 모노즈쿠리 인재연수 등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 단체사진〉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2020

일자 장소 | 10월 13일(화) 롯데호텔서울
회의 테마 | 한일 공통의 과제 ~ 글로벌 인재활용 ~
참가 규모 | 27명(한국 17명, 일본 10명)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2020 전경〉



〈발표자 : 정용권 전경련국제경영원 팀장〉

한·일(큐슈) 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해 자본·기술·인재 등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고 양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표제 회의가, 한일중 지역 간 경제협력포럼과 병행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사태 속에서 한국의 취직난과 일본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양국의 2019년도 활동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퇴사방지를 위한 1년간 공동 Follow-up 등 후속 조치 강화에 합의하였다. 또한, 인재채용 수요변화 및 틈새업종(건축솔루션, 자동차 정비)수요 조사 등을 이어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공통과제인 일자리 확보와 한국 인재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회의가 되었다.☞

한일중 지역간 경제교류포럼2020

일자 장소 | 10월 12일(월) 롯데호텔서울

회의 테마 | 애프터·위드코로나(After·With Corona) 한일중 협력의 과제 ~ 관광산업 ~

참가 규모 | 144명(한국 101명, 일본 27명, 중국 12명, 한일중3국협력사무국 4명)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적인 경제불안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중 3국의 공통 관심사항인 관광산업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표제 회의가 롯데호텔서울에서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2020과 함께 병행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활성화의 양립 과제 속에서 관계기관·기업 간 대면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홍보 및 매칭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3국 공통관심사항인 관광산업분야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시책을 공유하고 지역협력을 이끌어냈다. 한일중 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해, 환황해지역 경제활성화·관광 교류 증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인사하는 김윤 협회장〉

3국 지역간 관광산업분야의 교류증진을 위한 후속조치로는 내년에 구마모토에서 개최되는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연계하고, 환황해 연안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관계기관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㉔



〈한일중 지역간 경제교류포럼2020 본회의 전경〉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일자 장소 | 11월 27일(금) (한)JW메리어트호텔 - (일)호텔오쿠라도쿄 ※ 화상회의

회의 테마 |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 2020 SDGs 신시대 -

~ 'After 코로나'를 창출하는, 한일연계를 구축 ~

참가 규모 | 한일 양국 기업(단체)의 최고 경영자 및 임원 207명(한국 98명, 일본 109명)



〈개회인사하는 김윤 협회장〉

지난 5월 개최예정이었던 표제 회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되었으나, 1969년 제1회 회의 개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회의장을 웹으로 연결하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팬데믹, 수출규제, 불매운동이 지속되는 등 한일협력에 대한 우려가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는 양국 경제인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신시대 선언 등,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이 경제 협력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코로나 종식 후 양국 관계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일 협력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진 의미 깊은 회의가 되었다.

김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 정부 합의로 ‘비즈니스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기업인 왕래의 길을 열어 준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더 자유롭고 간결한 입국·격리면제·김포-하네다 국제선 재개 등 양국 경제협력에 필수적인 추가 조치들이 있기를 소망한다”라며, “최근 한일 양국의 갈등해소 노력으로 양국 정부간 대화와 소통의 움직임이 있음을 환영한다”라고 강조했다. 



〈입장하는 회장단〉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전경〉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 경제·인재·문화교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합의
 -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합의 환영 및 제3국 한일협업 추진
 - SDGs의 달성
 - 저출산·고령화·제4차 산업혁명·탈탄소 사회·글로벌 밸류체인 등 공통과제 해결
 - 청소년 교류·지역간 교류 활성화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

「미래를 여는 한일 협력 - 2020 SDGs 신시대 -」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0년 11월 27일에 일본국 도쿄도에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온라인 접속하여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98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09명이 참가하였다.

현재, 한일의 경제계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단기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마지 않는다. 최일선에서 온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양국의 의료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테마로 내건 SDGs는,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목표로, '건강과 복지'면에서 감염증 대책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외에도 경제성장과 산업, 빈곤, 교육, 회복력(resilience)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극복해 나가는 것 자체가 SDGs의 대차이기도 하다.

경제면에서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더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영향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일 경제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도, 온라인으로 양국을 연결하는 형태로 개최할 수 있었으며, 인재·문화교류에 있어서도 web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양국 경제인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 2020 SDGs신시대-'를 테마로, 진솔하게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토의했다. 그 결과 상호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제에 대해 연계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기에 함께 선언한다.

- 아 래 -

1.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중요성을 확고히 받아들이고, 지속과 확대를 위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한다.
 - (1) 한일 경제인은 이번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합의를, 자유롭고 폭넓은 무역·투자의 확대와 한일 기업의 제3국에서의 협업 등 경제활동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환영한다.
 - (2) 또한, SDGs의 달성, 저출산·고령화·제4차 산업혁명·탈탄소 사회·글로벌 밸류체인 등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한다.
 - (3)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통해 청소년 교류·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이해·상호신뢰에 입각하여 한일 우호의 인프라로서 흔들림 없게 추진해 나간다.
 - (4)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본래의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민간교류를 한층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서포트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도,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의 재개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시책의 실시를 강력히 요망한다.
 2.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한다.
- 그리고, 다음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20년 11월 27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보도자료]

※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NHK, 산케이신문 등 국내·외의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80여 건의 기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보도되며 한·일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했다.

중앙일보

2020년 11월 30일
10면 (국방/외교)

“징용배상 문제 해결, 한국은 특별법 만들고 일본은 사과를”

(피해자 배상 조치)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해법 모색
“한국, 국회서 일본에 회로 열어주고
일본, 반성 입장 분명하게 밝혀야”
문대통령·스가 총리 결단 촉구

한·일 경제인들이 27일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경제협력 양국 관계를 풀어야 할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이 선제적으로 특별 입법 절차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 겸 중앙홀딩스 회장은 지금의 한·일 관계에 대해 “단 하나의 갈등 요인이라도 추가되면 나라의 등을 부르러오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며 “한일협정 60주년인 2025년을 목표로 지금부터 역사 화해 프로세스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매해 개최됐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뒤 화상으로 진행됐다.

홍 회장은 특히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특별



제52회 한일경제인 회의가 27일 화상을 통해 한·일 양국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 측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측 경제인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유영환 전 장관, 류진 풍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 겸 중앙홀딩스 회장.

입법 절차를 통해 일본에 회로를 열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순”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 한국이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다”면서다.

이어 “한국 정부는 과거 두 차례 배상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 특별 입법을 통해 세 번째의 배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천일 시비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가진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결단을 내릴 자격과 여

유가 있다”고도 했다.

홍 회장은 “(한국 측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 대신 일본 정부는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부 간 합의의 형태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 회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지도자들이 “당사오평(鄧小平)의 지

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당사오평은 중국의 개혁개방 원년인 1978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센카쿠 열도(尖閣列島·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양국 분쟁에 대해 “지금의 중·일 지도층보다 더 지혜로운 다음 세대에게 이 문제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일본 총리는 “전쟁 때 큰 고난을 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에 거역의 원조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동 큰 타협’을 통해 일본은 광대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 중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엔 한국 측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했다. 남 대사는 “양국이 늘 부침이 있었지만 한·일 경제인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우정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에서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참석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양국은 가장 소중한 이웃 국가이자 바꿀 수 없는 무역 파트너”라며 관계 개선을 당부했다. 누카가 회장은 “얼마 전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이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이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하며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양국이 노력한 것처럼, 내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다영 기자

kim.doyoung1@joongang.co.kr

(28.7*16.5)cm

서울경제

2020년 11월 28일
04면 (종합)

“직격탄 맞은 경협 회복하자”...韓·日 기업인들 한 목소리

양국서 한일경제인회의의 동시 열려
후쿠다 “정치·문화 등 교류 확대를”
韓측은 “RCEP 안착·코로나 극복”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한·일 기업인들은 수출규제와 불매운동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양국 경제부터 교류의 물꼬를 더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뜻을 모았다.

27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과 도쿄 미나토구 오쿠라호텔에서 동시에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한·일 양국은 가장 소중한 이웃 국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며 “특히 경제적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홍석현(오른쪽부터) 중앙홀딩스 회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측면에서는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양국 기업인들은 민간 교류의 확대 발전을 위해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중의원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 채널은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가 스가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과는 다른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분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참가자들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교류를 재개하자고 언급했다.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안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현재 3,000개가 넘는 기업이 양국의 가치 사슬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수소 등 신(新)에너지 시장에서의 양국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을 지난 11월 15일 8년의 여정 끝에 체결했다”며 “역내 국가들에서 긴밀한 협력 모색이 가능해진 만큼 기존의 분야적 협력 관계를 제3국으로도 확대 발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24.0*11.4)cm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포스트 코로나 경제협력 논의

입력 2020.11.27. 오후 2:44 · 수정 2020.11.27. 오후 3:49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일경제협회는 27일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개회사
[한일경제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969년부터 매년 교차로 열리는 민간 경제 회의로, 올해로 52번째를 맞았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던 회의는 서울과 도쿄를 잇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양국 정부가 '비즈니스 트랙'을 만들어 기업인 왕래의 길을 열어준 것을 환영한다"면서 "더 간결한 입국·격리면제와 김포-하네다 국제선 재개 등 추가적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 활성화 등 공통과제를 갖고 있어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경제인협회 한국과 일본 측 참석자
[한일경제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세계를 둘러싼 정세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에 따른 여러 영향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SDGs"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한국 측 정·재계 인사 98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자문위원회 부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 상사 특별고문 등 109명이 참여했다.

vivid@yna.co.kr

신규 회원사 소개



SK(주)
장동현 대표이사사장

SK(주) | 협회 부회장

- 업 종 : 지주회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창립연도 : 1991년
- URL : <http://www.sk.co.kr/>



모던인테크(주)
최인환 사장

모던인테크(주)

- 업 종 : 섬유, 의복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창립연도 : 1989년
- URL : <http://mddeco.co.kr>



새만금개발청
양충모 청장

새만금개발청

-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 창립연도 : 2013년
- URL : <http://www.saemangeum.go.kr>



세무사이치열사무소
이치열 대표

세무사이치열사무소

- 업 종 : 법무, 회계
-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 창립연도 : 2018년

회원사 동정



삼양홀딩스
김 윤 회장

■ 삼양패키징,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 지역에 기부 활동

- 삼양사 큐원 상쾌환, '2020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제조부문 대상 수상
- 삼양패키징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대구지역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긴급 기부 활동에 참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 한화그룹, 세이버 Asia Pacific 어워드에서 6개 부문 수상

- 세이버 Asia Pacific 어워드에서 Diamond Sabre Awards 올해의 기업상과 브랜드 빌딩 부문 등 6개 부문에서 수상
- 사회취약계층 1만 가구에 위생용품 세트 1만개를 제작하여 복지기관 20여곳에 전달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 효성,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언택트 사회공헌

- 효성, 유럽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위해 터키 스파덱스 공장 증설을 추진하며 글로벌 1위 스파덱스 초격차 확대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
- 마포구가 주관하는 '2021 따뜻한 겨울나기 언택트 모금'에 성금 4천만 원을 전달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 대한항공, 어려움 처한 여행사에 상생 지원

- 대한항공, 해외 여행객 감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를 돕기 위한 수익금 일부를 공유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 27회 기업혁신대상'에서 대통령 상을 수상



SK
장동현 대표이사

■ SK, 장애인 고용신뢰기업 트루컴퍼니 대상 수상

- SK, 장애인 고용 확대 최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 '트루컴퍼니' 대상 선정
- 수소 사업에 본격 진출을 위해 수소의 생산-유통-공급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



신도리코
우석형 회장

■ 신도리코, (주)디엠비와 3D프린팅 교육 협력 MOU 체결

- '2020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사무용 복합기 및 3D 프린터 부문 대상 수상
- (주)디엠비와 3D프린팅 교육 협력 MOU 체결하여 지역사회에 메이커 문화 활성화 동참



세아제강
이희령 부회장

■ 세아제강, 해상풍력 생산라인 증설로 (주)신택 인수

- 세아씨엠은 화재 시 연소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컬러강판을 연구 개발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인증을 취득
- (주)신택의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해 해상풍력 구조물 자켓용 핀파일 전용 설비를 구축하여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적극적인 투자 나섬



(주)포스코
최정우 회장

■ 포스코, 미국 원료공급사와 'GEM 매칭펀드 2호' 조성

- 미국 원료공급사와 'GEM 매칭펀드 2호'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한 공생가치 창출을 강화할 계획
- 포항제철소 소결공장에 SCR 설비의 준공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대폭 저감 하는 친환경 제철소 구축에 나섬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조용병 회장

■ 신한금융,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8년 연속 선정

-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선정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5억원을 전국재해 구호협회에 기부



도레이첨단소재(주)
이영관 회장

■ 도레이첨단소재, 제34회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

- 생산체제를 변경해 신속하게 마스크 부직포의 대량생산체제로 전환한 도레이첨단 소재에 국무총리의 감사 인사
- 도레이첨단소재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점 등을 높이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

한일 통계자료

I 교 역

《단위 : 억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0
수 출	321.8 (△7.2)	255.8 (△20.5)	243.6 (△4.8)	268.2 (10.1)	305.3 (13.8)	284.2 (△6.9)	206.3 (△13.0)
수 입	537.7 (△10.4)	458.5 (△14.7)	474.7 (3.5)	551.2 (16.1)	546.0 (△0.9)	475.8 (△12.9)	371.9 (△7.3)
무역수지	△215.8	△202.8	△231.1	△283.1	△240.8	△191.6	△165.6
총교역액	859.5	714.3	718.2	819.4	851.3	760.0	578.2

※ 20.10월 기준, 일본은 우리의 수출대상국 5위, 수입대상국 3위국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대상국.

※ 20.9월 기준, 일본에 있어 한국은 수출대상국 4위, 수입대상국 5위.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대만에 이어 제5위 교역대상국

I 투 자

《단위 : 억불, ()는 건수 /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09
일 본 의 대한투자	24.9 (352건)	16.7 (314건)	12.5 (299건)	18.4 (328건)	13.0 (335건)	14.3 (238건)	5.9 (126건)
한 국 의 대일투자	5.0 (170건)	8.1 (195건)	3.2 (215건)	8.3 (264건)	13.1 (243건)	12.0 (244건)	4.6 (68건)

※ 20.9월 기준, 일본의 전체 해외투자 중 한국은 8위이며,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일본은 12위.

※ 산업통상자원부(일본→한국), 한국수출입은행(한국→일본)

I 인적교류

《단위 : 만명, ()는 증감률 /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JNTO》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
방 한 일본인	228.0 (△17.0)	183.8 (△19.4)	229.8 (25.0)	231.1 (0.6)	294.9 (27.6)	327.1 (10.9)	42.8 (△86.9)
방 일 한국인	275.5 (12.2)	400.2 (45.3)	509.0 (27.2)	714.0 (40.3)	753.9 (5.6)	558.4 (△25.9)	48.0 (△90.3)

※ 20.9월 기준, 전체 외국인 입국자중 방한일본인 비중은 13.3%로 2위, 방일한국인 비중은 12.1%로 3위.

(사)한일경제협회 회원가입 안내

우리협회는(회장 : 김 윤 삼양홀딩스 회장) 한일 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한일 간 민간 경제협력·무역증진·산업협력 등을 위해 1981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자매기관인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한일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기업인 간 상호 교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정립해 가고 있는 우리협회는 일본의 각 지역(호쿠리쿠, 큐슈, 동북, 중부 등)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과 폭 넓은 한일 경제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한일경제인회의 및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 회원사간담회 및 SJC(서울재팬클럽)등과의 교류간담회
- 일본시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
- 한일 지역 간(호쿠리쿠, 큐슈, 동북, 중부 등)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회원사 자녀 대상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운영, 한일학생미래회의 개최 지원
- 경영자 및 기술자의 해외(일본, 유럽, 독일 등)연수
- 한국 청년인재의 일본기업 취업 지원
-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가초청 기술지도
- 수출확대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기업 경영에 필요한 수시 정보제공

우리협회는 회원사의 성장발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명실상부한 대일협력 창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가입 바랍니다.

회원가입 양식 다운로드 주소 : http://kje.or.kr/index.php/user_member/sign_up

※ 문의 : 서광현 과장(02-3014-9886) 

(사)한일경제협회 회장단 명단

※ 선임연도 및 가나다순, 2020.12

회 장(1명)	김 윤 (KIM Yoon)	(주)삼양홀딩스 회장
명예회장(2명)	김 상 하 (KIM Sang-Ha) 조 석 래 (CHO Suck-Rai)	삼양그룹 명예회장 효성그룹 명예회장
고 문(6명)	허 창 수 (HUH Chang-Soo) 박 용 만 (PARK Yong-Maan) 김 영 주 (KIM Young-Ju) 김 기 문 (KIM Ki-Mun) 손 경 식 (SOHN Kyung-Sik) 이 윤 우 (LEE Yoon-Woo)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주)인투테크 대표이사
부 회 장(17명)	김 승 연 (KIM Seung-Youn) 우 석 형 (WOO Suk-Hyung) 류 진 (RYU Jin Roy) 신 동 빈 (SHIN Dong-Bin) 장 세 주 (CHANG Sae-Joo) 이 휘 령 (Howard LEE) 조 현 준 (CHO Hyun-Joon) 윤 종 규 (YOON Jong-Kyoo) 문 규 영 (MOON Kyu-Young) 손 봉 락 (SOHN Bong-Rak) 조 용 병 (CHO Yong-Byoung) 이 인 용 (RHEE In-Yong) 구 자 균 (KOO Ja-Kyun) 최 정 우 (CHOI Jeong-Woo) 허 진 수 (HUH Jin-Soo) 조 원 태 (CHO Won-Tae) 장 동 현 (JANG Dong-Hyun)	한화그룹 회장 (주)신도리코 회장 풍산그룹 회장 롯데그룹 회장 동국제강(주) 회장 (주)세아제강 부회장 효성그룹 회장 KB금융그룹 회장 아주그룹 회장 (주)TCC스틸 회장 (주)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삼성전자(주) 사장 LS일렉트릭(주) 회장 (주)포스코 회장 GS칼텍스(주) 이사회위원장 한진그룹 회장 SK(주) 사장
상임이사(14명)	서 민 석 (SUH Min-Sok) 김 희 용 (KIM Hi-Yong) 이 수 철 (LEE Soo-Chul) 박 인 구 (PARK In-Gu) 이 영 관 (LEE Young-Kwan) 이 경 재 (LEE Kyung-Jae) 이 상 준 (LEE Sang-Joon) 최 우 각 (CHOI Woo-Kak) 양 무 승 (YANG Moo-Seung) 채 승 우 (CHAE Seung-Woo) 김 천 주 (KIM Chun-Joo) 김 동 원 (KIM Dong-Won) 박 남 숙 (PARK Nam-Sook) 우 기 홍 (WOO Ki-Hong)	DI동일(주) 회장 동양물산기업(주) 회장 (주)GH홀딩스 회장 동원그룹 부회장 도레이첨단소재(주) 회장 (주)삼진엘앤디 회장 (주)화인 대표이사 (주)대성하이텍 대표이사 (주)투어2000 회장 삼남석유화학(주) 사장 캐논코리아BS(주) 고문 한화생명(주) 전무이사 교세이국제특허정보(주) 대표 (주)대한항공 사장
상근임원(1명)	서 석 송 (SEO Seok-Soong)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감 사(2명)	이 승 호 (LEE Seung-Ho) 황 호 균 (HWANG Ho-Kyoon)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주)대성이노텍 부회장

(사)한일경제협회 회원사 명단

※ 116개사, 가나다순, 2020.12

가나피엔엘	SAMCO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교세이국제특허정보	새만금개발청	캐리마
금호타이어	서포트포유	캐피탈원
김&장 법률사무소	세아제강	KB금융그룹
네오티스	법무법인 세종	티시스틸
농심	수산중공업	투어2000
다이이치교통산업코리아	슈퍼라이트케이스	TCC스틸
대농	식탁이있는삶	TS대한제당
대상중공업	신도리코	티티에스
대성산업	신한금융지주회사	팬코
대성이노텍	신한은행	포스코
대성하이텍	신현권 회계사무소	풍산그룹
대영회계법인	신흥SEC	프로텍
대한상공회의소	CJ건설/GH홀딩스	하이드로텍
대한항공	CJ제일제당	한국가스공사
도레이첨단소재	아띠글로벌	한국경영자총협회
동국제강	아주그룹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동아쏘시오홀딩스	에스씨케이	한국넛켄
동양물산기업	SLK국보	한국무역협회
동원그룹/동원F&B	SK(주)	한국보팩터미날
동화엔텍	SK네트웍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두산	HG신소재	한국수출입은행
DI동일	엔에스사인기획	한국SMC
롯데그룹	LS일렉트릭	한국에이앤디
롯데케미칼	LG상사	한국OSG
모던인테크	우성정공	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바로여행사	유승산업	한영넥스
반석정밀공업	이노라이프	한일금속공업
베스트웨스턴코리아	세무사이치열사무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보문	재성	한진그룹
산업연구원	재영솔루텍	한화그룹
삼남석유화학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한화생명
삼성물산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대종합상사
삼성전자	조선내화	현우무역
삼양홀딩스	중소기업중앙회	호텔롯데
삼양화성	GS칼텍스	화인
삼익테크	GMK코리아	효성그룹
삼일씨앤에프	지오네이션	히카리정보
삼진엘앤디	GGM	

새만금

새로운 문명의 탄생

글로벌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허브,
관광·산업·스마트 수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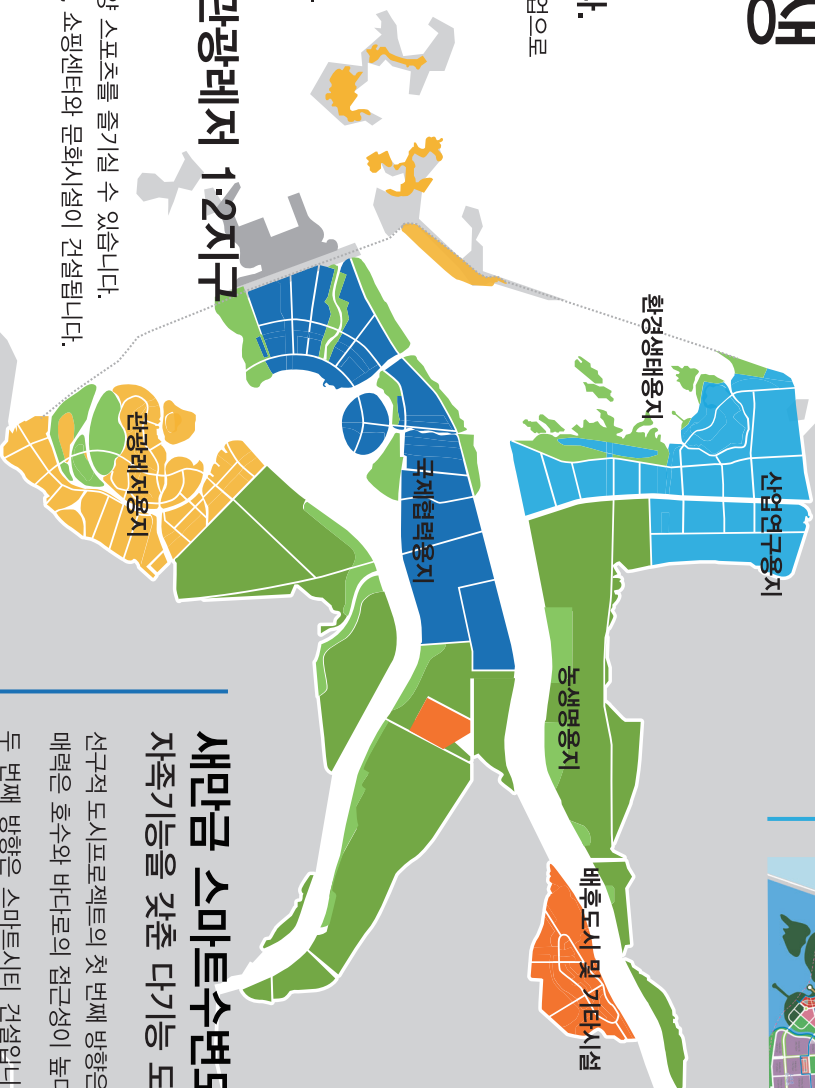
새만금개발청이 미래를 향해 도약합니다.

새만금 프로젝트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으로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33km 길이의
방조제 완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총 2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대 용지 조성을 계획하고 여의도 140배에 달하는
409㎢의 면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관광, 산업, 스마트수변도시를 둘러보겠습니다.

신시야미 지구, 고군산군도, 관광레저 1·2지구

관광산업의 새로운 리더

역동적인 레저 및 아웃도어 여가활동 체험과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에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숙박시설, 쇼핑센터와 문화시설이 건설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상적인 관광 테마 도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면적 : 18,50㎡
- 총사업비 : 2,22조원
- 사업시행자 : 한국물어출공사
- 개발방향 : 모빌리티,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 데이터센터, 항만 등
- 타깃산업 : 자동차, 재생에너지, 첨단소재 등

미래 신산업, 4차 산업혁명의 허브!

산업단지 투자를 통해 기업은 법인세 감면과
장기 토지임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미래 모빌리티, 첨단소재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다기능 도시

선구적 도시프로젝트의 첫 번째 방향은 “친수환경”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만금의 최고의
매력은 호수와 바다로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스마트시티 건설입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주택, 건축,
교통, 에너지 등 도시 요소전반에 적용하여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리더로 만들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세 번째 방향은 친환경 도시건설입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되며 수로와 녹지로 가득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 면적 : 국제협력용지 내 6,60㎡
- 인구 : 2,5만명
- 총사업비 : 1,33조원
- 사업기간 : 2019~2024년
- 개발방향 : 친환경 스마트수변도시, 국제비즈니스,
MICE, 호텔, 리조트, 주택 등

신시야미 지구 - 면적 : 1,92㎡ - 기간 : 2018~2030 (2025년까지 부지조성 완료) - 총사업비 : 8,768억원 - 사업시행자 : 새만금관광레저(주)	새만금 영호남부지 - 면적 : 67,000㎡ - 기간 : 2020~2025 (1단계 : 2020~2023) - 총사업비 : 813억원 - 사업시행자 : 연애스파티나스(주)	고군산군도 - 면적 : 3,30㎡ - 고군산영길도로 개통(2017년) 및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사업* 진행 중 * 기간 : 2019~2024년
--	--	---